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다시,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

보도시점: 2023. 3. 30.(목) 11:00 이후(3.31.(금) 조간) / 배포: 2023. 3. 30.(목)

대학 기반 자율주행 실증인프라 갖추다

- 31일 충북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C-Track 정식 개소

- 충북대 스마트카연구센터 누리집 통해 이용… 온라인 예약 또는 전화상담

- 국토부 “C-Track, K-City와 함께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한 축 담당”

□ **국토교통부**(장관 원희룡)는 3월 31일 오후 2시 비수도권 지역의 **자율주행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수요**에 대응하기 위해 구축한 **실차 기반 실증 기반시설**(인프라)인 「**충북 자율주행 테스트베드(이하 'C-Track')**」를 **정식 개소**한다고 밝혔다.

○ C-Track은 국토교통부·충청북도·청주시·충북대학교가 **지역기업 육성·전문인력 양성**을 통해 **지역맞춤형 모빌리티 신산업**을 선도하고자 건립한 **중·소규모 자율주행 테스트베드**이다.

○ '19년에 **공모**를 통해 **충북대학교 오창캠퍼스**가 **테스트베드의 적지**로 **선정**된 이후 지난해까지 **총 295억 원을 투입**하여 구축을 완료하였으며, **3월 31일 준공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운영**에 나선다.

□ 그간 수도권에는 **국내 최대 자율주행 테스트베드인 K-City**(경기 화성)가 국내 자율주행 중소·스타트업의 기술향상을 위한 훈련기지로서 역할을 해왔으나, **대전·충청 등 중부 지역**에는 자율주행 기술을 연구하려는 수요에 비해 **테스트베드** 등 **실증여건은 부족**한 상황이었다.

○ 이번에 개소하는 C-Track은 전국 어디서든 **2시간 내에 접근**할 수 있는 **지리적 이점**을 갖추었으며, 근방에 국내 최고 과학기술 관련 대학을 비롯하여 **자율주행 관련 다수의 연구기관·기업** 등이 위치*하여 산·학·연의 **시너지 효과**가 기대된다.

* 한국전자기술연구원, 한국기계전기전자연구원 대용량ESS센터(음성), 현대모비스(충주) 등

○ 정식 개소 이전 운영규정 마련을 위한 7개월간의 **시험운영 기간** 동안 총 9개의 기관이 **1,110시간** C-Track 시설을 이미 이용하였으며, **60개의 기관**이 자율주행 시나리오 테스트 및 성능평가 등에 C-Track을 **이용할 것을 희망***하여 국내 자율주행 역량 강화에 **오픈 이노베이션 허브 역할**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* 사전 수요조사('23.3월~4월 중순)를 통해 C-Track 자율주행 가상환경 검증 장비 활용 의향서 접수 중. 현재까지 KAIST, 한국자동차연구원 등 60개의 산·학·연 기관 희망

□ C-Track은 총 **83,096㎡ 부지**에 실제 도로환경을 반영한 **5개 구역 16종 시험로**와 차량 개조·시스템 조정이 가능한 **시험동** 및 시험차량 모니터링을 위한 **관제센터**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.

* (시험구역) 도심, 야외, 순환, 응용, 주차 등 5개 구역 / (시험로) 자전거·보행자도로, 버스정류장, U턴구간, 자동차 전용 순환로(1.4km) 등 16개 시험시설 / (기타) 통합 관제센터, VILS(차량 기반 가상교통상황 재현) 시험동 등

○ 시험로의 경우 신호교차로·보행자도로 등 **필수적인 자율차 시험시설**은 물론, **공사구간·BRT 전용도로·갓길주차구역** 등 보다 **다양한 도심환경을 재현**하였으며, 국내 자율주행 기술수준 향상에 맞추어 **비포장로·산악 경사로** 등 **주행난이도가 높은 시험시설**까지 갖추었다.

□ 또한, C-Track은 중소기업, 연구소, 대학교 등의 자율주행 연구 및 안전성 평가 지원은 물론 **초중고 진로체험 학습**, 재직자 재교육, **자율주행 경진대회** 그리고 일반인 대상 자율주행 체험 행사 등에도 활용되며,

○ C-Track 개소와 함께 정식 오픈할 예정인 **충북대학교 스마트카연구센터 누리집(http://cbnuscrc.org)**을 통해 **온라인 예약** 또는 **전화상담**(043-249-1683)으로 C-Track을 이용할 수 있다.

□ **국토교통부 박진호 자율주행정책과장**은 "C-Track은 산·학·연 융합 자율주행 생태계 육성을 위한 전초기지로, K-City와 함께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할 것"이라고 개소식의 의미를 강조하였으며,

○ 충청북도 김명규 경제부지사는 “미래차 전환 시기에 C-Track이 자율주행 기술 허브 인프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에서도 국토부와 함께 적극 지원할 예정”이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모빌리티자동차국 자율주행정책과	책임자	과 장	박진호 (044-201-3847)
		담당자	사무관	김영주 (044-201-3851)
유관 부서	충청북도 산업육성과	책임자	과 장	이용일 (043-220-8450)
		담당자	팀 장	곽용관 (043-220-8471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참고1 충북 지역테스트베드(C-Track) 구축사업 개요

□ 추진배경

○ **지역기업·대학** 등을 **육성**하기 위해 자율주행 기술개발 수요가 높은 중·남부권 지자체 대상 **'지역테스트베드 구축사업'** 추진('19~)

- **공모**('19.2.)를 통해 **충북도**가 **선정**, 충북대학교를 배경으로 **지역 맞춤형 중·소규모 테스트베드(C-Track)** 구축 착수('19.6~)

□ 주요내용

○ (**참여기관**) **충북도**(주관), 청주시·충북대학교

○ (**위치 /규모**) **충북대 오창캠퍼스**(충북 청주시 오창읍 일대) / 83,096㎡

○ (**사업기간 /예산**) '19 ~ '22년 / 295억 원(국비 88, 지방비 32, 현물 175)

○ (**주요시설**) **충북대 오창캠퍼스와 연계**하여 테스트베드 부지 조성, 실제 도로환경을 반영한 **시험로, 시험공간** 및 **관제센터** 등 구축

- (**시험로**) **도심구역**(신호교차로, 버스정류장 등), **야외구역**(비포장로 등), **순환구역**(1.4km의 자동차전용도로) 등 **자율차 전용 시험로** 조성

- (**시험시설 등**) 시험 차량 모니터링을 위한 **통합관제센터**, 차량 개조 공간인 **VILS*** **시험동**, **자율주차구역**(40대 이상) 등 구축

* VILS(Viecle-In-the-LoopSimulation, 차량 기반 가상교통상황 재현)

[충북 테스트베드 전체 조감도]

참고2 충북 지역테스트베드(C-Track) 주요시설

<table>
<tr><td>
</td><td>
</td></tr>
<tr><td>전경</td><td>도심구역</td></tr>
<tr><td>
</td><td>
</td></tr>
<tr><td>야외구역</td><td>순환구역</td></tr>
<tr><td>
</td><td>
</td></tr>
<tr><td>응용구역</td><td>주차구역</td></tr>
<tr><td>
</td><td>
</td></tr>
<tr><td>통합관제센터</td><td>VILS시험동</td></tr>
</table>